

退讀備忘錄 1

—蘇東坡集에 보이는 高麗美術品—

金元龍

蘇東坡가 高麗使節들의 宋나라에서의 買書를 禁해야 한다고 哲宗에게 上奏한 「論高麗買書利害」라는 笏子(上奏文의 形式)에 대해서는 金庠基先生의 高麗時代史에도 言及되어 있지만 東坡全集을 보면 이 笏子は 元祐8년(1093) 2월1일에 當時 禮部尙書이던 東坡가 高麗使가 사기를 願하고 있는 歷代史, 策(冊)府元龜, 北史등 서적은 사게 해서는 안된다고 高麗入貢五害를 들어 上奏한 것이고 그래도 2월12일 尙書省, 樞密院이 買書를 特別許可하자 2월15일 다시 反對笏子を 올렸다. 그래도 許可가 철회되지 않자 2월26일 세번째로 笏子を 올려 다시 「高麗入貢五害論」을 強調하고 있는데 宋史哲宗紀에는

元祐八年二月辛亥 禮部尙書蘇軾言 高麗使乞買歷代史及策府元龜等書 宜卻其請不許 省臣許之 軾又疏陳五害 極論其不可 有旨 書籍曾經買者聽

(蘇軾이 高麗使가 歷代史·策府元龜等書를 願買하는데 그 請을 물리치고 不許해야 한다고 上言하였다. 그러나 尙書省 등에서 買書를 許可하였다. 蘇軾은 다시 疏를 올려 (高麗의 入貢의) 五害를 들어 許可의 不可함을 極論하였다. 여기서 哲宗은 過去에 사 간 일이 있는 서적은 이번에도 許可하라고 승하였다.)

東坡가 이렇게 기를 쓰며 高麗의 買書를 반대하는 것은 첫째는 外國人에게 中國의 文字(記錄)와 熟銑鐵이 퍼지는 것은 百害無益이라는 見地에서 既發布된 바 있는 熟銑鐵及文字交易禁令에 違反된다는 것이고 두번째 큰 理由는 高麗에 들어가는 宋의 情報은 高麗가 遼(契丹)의 心腹임으로 결국은 遼로 들어가 利用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여튼 東坡는 이때 他省의 官吏들에게 밋게 보였는지 紹聖元年(1094)4月에는 그가 草한 文件중에 남을 헐뜯은 귀절이 있다해서 英州知事로 左遷되고 있다.

그런데 東坡의 첫번째 上奏文(1097년 2월1일字)속에

「몇해前 杭州知事로 있을 때 高麗使節이 바치는 金塔을 물리친 바 있다.」(近歲出知杭州 却其所進金塔)

라는 말과

「최근 接客官의 請인즉 高麗使를 위해서 金薄片一百貫을 사서 杭州에서 佛像을 鍍金하였으면 하나 臣은 아직

이를 許可하지 않고 尙書省에 품신하였습니다. (中略) 그러나 金薄片은 원래 交易禁物인데다가 高麗使들은 粧佛을 구실삼아서 杭州에 長留하며 公私로 소란을 피울 것입니다. (中略) 이번 高麗使節의 出國日字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接客官을 시켜 金薄片 打造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핑계하고 金片을 사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라나이다」

(近日館伴所申 乞爲高麗使 買金薄一百貫 欲於杭州貼佛 臣未敢許(中略) 金薄本是禁物 人使欲以貼佛爲名 久住杭州 搔擾公私(中略) 今來高麗使 朝鮮日數已迫 乞指揮館伴 令以打造不出爲詞 更不令收買)

라는 말이 들어있다.

여기 말하는 金塔은 高麗時代に 많이 만들어진 金銅小塔의 하나일 것인데 東坡는 熙寧5년(1072) 한해동안 杭州의 通判(副知事格이지만 知事を 牽制하기 위한 設官으로 知事와 맞먹는 權限所有)으로 있었고 다시 元祐5년(1090)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知事로 在任하였다. 따라서 여기 「近歲」는 1090~91년 사이를 말한 것이며 이때 高麗使는 杭州까지 와서 金銅塔을 知事에게 선물로 내놓고 佛像金薄의 許可를 要請하였던 모양이다. 이 鍍金하려던 佛像이 銅佛인지 鐵佛인지 그리고 宋佛인지 高麗佛인지 알길이 없으나 크고 무거운 佛像을 들고 遠路旅行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追善奉獻이나 護持를 위한 작은 銅佛들로서 必是 高麗에서 일부러 들고 온 佛像들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이 佛像들이 蘇東坡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買書의 경우와 같이 哲宗의 許可를 얻어 鍍金되었는지 아닌지는 記錄에 나오지 않으나 高麗의 鍍金佛像중에는 멀리 杭州에서 鍍金된 것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事件이라고 하겠고 杭州에는 高麗까지 알려진 그런 金工房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蘇東坡는 이렇게 뭔가 高麗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東坡施註蘇詩 卷26에는 「和張耒高麗松扇」이라는 다음같은 律詩 一首가 실려 있다.

可憐堂上十八公 老死不入光明宮
 万牛不來難自獻 裁作團團手中扇
 屈身蒙垢君一洗 挂名君家詩集裏
 猶勝漢宮悲嬖好 網虫不見乘鸞子

(堂上에서 堂堂하던 十八公(松)이 늙어서 잘리워서 光明宮의 建築材木으로도 쓰이지 못하고 소들이 끌어주지 않으니 스스로 나 쓰시오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잘게 쪼개져서 둥근 손부채가 되었구나. 이렇게 몸 굽힌 창피를 張君이 씻어내고 松扇이름을 詩集에 올렸으니 소박 당한 漢나라 班婕妤의 怨詩에 나오는 紈扇보다도 좋고 가을이 오면 안보게 된다고 劉禹錫의 詩에 나오는 鳳凰타고 煙霧속으로 날아간 奏王女 그려진 秋扇보다도 좋구나)

張耒는 東坡門下の 소위 四學士중의 하나이며 그가 高麗의 松扇을 入手하고 기뻐서 지은 詩에 東坡가 和酬한 것이다. 高麗松扇은 高麗圖經에도 「取松之柔條 細削成縷 搯壓成綫 而後織成 上有花紋 不減穿藤之巧」(솔나무의 가늘고 부드러운 가지를 가늘게 깎아서 실처럼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서 더 가는 실로 만들고 그것을 짜서 부채로 만드는데 거죽에는 꽃무늬가 있다. 그 정교한

숨씨는 藤줄기에 구멍을 뚫는 것에 지지 않는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결국 솔나무실로 짠 松布扇이라고 할 수 있으며 東坡詩에도 團團이라고 나와 있듯이 이것은 접었다 폈다하는 소위 摺扇이 아니고 손잡이 달린 둥근 團扇이라고 믿어진다.

宋나라에 건너간 또다른 高麗美術品의 一例로는 曹勛의 松隱集 卷28에 나오는 高麗爐가 있다.

高麗爐一枚(中略) 茲爐之先 鯨波空際 有國曰韓 以陶以器 奉之函丈 寶烟輕細 此一瓣香 用嚴報地

(이 香爐는 저 바다멀리 있는 韓이라는 나라에서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지금 스승어른에게 올리나이다. 香爐에서 나오는 香煙은 가볍고 가늘며 이 한 片의 香은 謹嚴한 마음으로 誠心껏 피우면 四方이 淨土로 될 것입니다.)

曹勛은 宣和5年(1123)에 進士及第하여 節度使를 지낸 사람인데 여기 말하는 爐는 두말할 것 없이 靑磁香爐이고 宋나라 上流社會에서 高麗靑磁의 逸品들이 最高級의 평가를 받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記錄이라 하겠다.